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부처님 (상)

원정언 (부산시 사상구 모라 3동)

천년고찰 부산 운수사에서 기도하고 부처님을 만나 보았다. 2000년 6월 유방암 진단 받고 고통스러워하던 때였다. 일하러 다닌다고 바쁘게 살다보니 집에서 가까운 절에만 다녔는데 몸도 아프고 시간도 남아서 운수사를 찾은 김에 인당도 밟았다. 간호해 줄 사람도 없이 서울에 가서 항암치료를 마치고 9개월 만에 내려오니 살림살이는 엉망이었고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 있었다. 더구나 독한 항암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몸의 기능도 많이 저하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각난 것이 한약이었다. 그러나 '암환자는 한약을 먹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망설이다가 '여차피 죽을 것 먹어보자'고 결심하고서 한 재를 주문했다. 한 봉지 한 봉지 먹을 때마다 몸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우울증도 점차 나아졌다. 그러나 '남편이 도와주면 살 것 같은'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때마다 섭섭함만 더해져갔다.

내린 셈이었다. 천정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다. 나 또한 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를 낳았다가 차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어진 아이 둘을 잘 키우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그리고 소파수술을 하면서 복강수술도 함께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남들한테 뒤지지 않게 키우겠다'고 모질게 마음을 먹었다.

의사는 2년 6개월 정도 살 가능성도 30%가 안된다고 했다. 남편도 이미 포기상태인 것 같았다. 나는 죽을 것 같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남편이 예사로 생각하는 모습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다.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만 신경 쓰게 되니 아이들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죽을 앞에 서게 되니까 갑자기 참회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4살, 2살 된 사내 아이 둘의 원래 모친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웃집 아주머니께 사정을 들은 나는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키우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 내 나이 27살에 입양하겠다는 결정을

운수사 부처님 앞에 앉아 그런 생각까지 들자 '그러고도 모자라서 참회의 눈물까지 흘려야 하더니'라는 마음이 슬며시 들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숨이 끊어질듯 몸이 아파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무조건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참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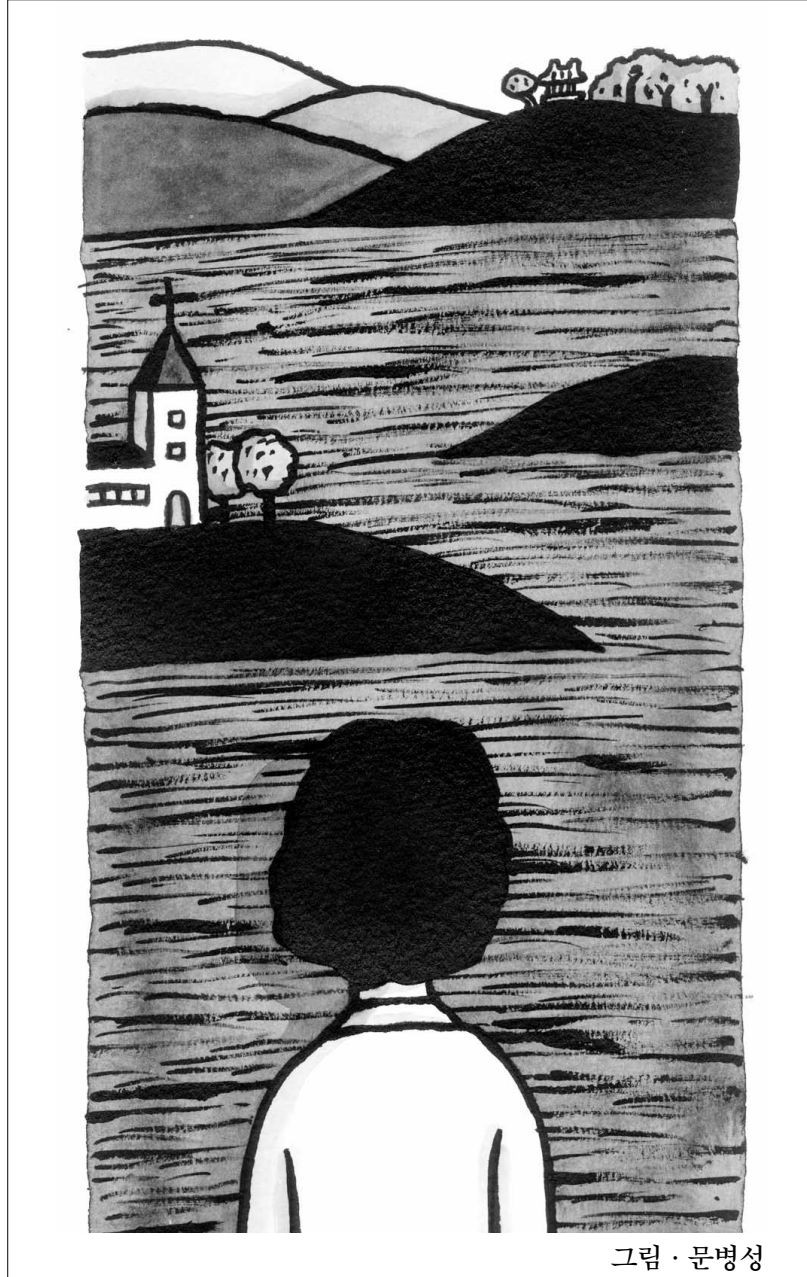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아나했다. 내가 "스님, 저는 절에 다닌 지가 18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무 것도 모르겠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예불책을 돌려드리고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스님은 가만히 생각하다 입을 여셨다. "18년이나 다녔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니, 불교대학을 다니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마침 불교대학 강의가 있으니 시간 있으면 올라와서 들으세요."

스님은 간결히 대답하시곤 다른 스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더니 요사채로 들어가셨다. 이상하게도 그 스님의 말씀이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계시던 다른 스님께서는 "기도를 열흘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니 "108 염주 갖고 하나씩 돌리면서 절을 하세요"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셨다. 또 "절에서는 신모장구대다라니를 3~7번씩 읽으라"고 하셨지만 금방 죽을 것 같은 사

람의 눈에 글씨가 들어올 리 만무했다. 나는 그 동안 <천수경>·<반야심경>도 제목만 알았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몰랐던 것이다.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다니던 곳에서 무엇을 찾아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할 결심을 세웠다. 함께 사찰에 왔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간이 되길 기다렸다가 큰 법당으로 갔다. 불교대학 강의 장소라는 큰 법당은 불자들이 딱 차 있어서 주눅이 들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아까 그 스님께서 들어오셨다. 스님은 "어느 보살님이 절에 다니지 18년 됐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시간 있으면 수업을 들으러 오라고 했다"며 "그런데 올라왔나 모르겠네"라고 말씀하시며 주변을 둘러보셨다. 나를 발견

오던 것들이 스르륵 풀리면서 내 자신을 측은하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온 것임을 알게 됐다. 나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 나를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받아들이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울지 못했던 내 자신의 마음속에 맺혔던 것들이 살아서 풀린 것이다. 이런 멋진 것을 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천도재를 지내주고 나서야 극락왕생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제 서야 들었다. 강의가 끝나자 스님께서는 강의내용이 담긴 종이를 나눠주시고는 수강생들이 돌아갈 때까지 뒷모습을 배웅하며 일일이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셨다. 정말 친절한 스님이라는 생각이 들며 '꼭 다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27세에 반대 무릅쓰고 두 아이 입양 우울증과 암치료를 고통스런 나날

하신 스님께서는 "식구가 늘면 제일 먼저 입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인연'에 대한 설명,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주셨다. 점점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강의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자세도 배워드릴 무렵,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쉽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도 뒤를 생각조차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2시간여를 그렇게 울고 있었다. 눈물과 콧물을 닦아내고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울고 있나'라고 물어보자 예전에 내 자신이 안 울고 억눌러

다울 날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 법당에 갔는데 수능시험 기도 때문에 대웅전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는 큰 법당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앞에서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108배를 시작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남편에게 3배를 하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스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했지요"라고 하자 실지는 않은지 피식 웃었다. 스님께 당시 부부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드려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콕콕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셋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므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 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우므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회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